

무더위 날려줄 '전주가맥축제' 열린다

25~27일 전주종합경기장서 공연·드론쇼·불꽃놀이·이벤트 등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 '풍성'

전주 고유의 가맥문화를 함께 즐기며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낼 수 있는 축제가 펼쳐진다.

전주시는 전주가맥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일)가 주관하는 '2024 전주가맥축제'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전주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된다고 24일 밝혔다.

전주가맥축제에서는 당일 생산돼 전국에서 가장 신선한 맥주를 맛보고, 축제에 참여하는 지역내 유명 가맥업체들의 안주 등 다양한 먹거리를 문화공연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

올해 축제는 먼저 첫날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드론쇼와 불꽃놀이, 축하공연 등 다양한 퍼포먼스로 구성된 개막식과 단체 견배 제의를 통해 막이 오른다.

이어 축제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가수 공연과 가맥 클럽파티, 관객이



2024 전주가맥축제 포스터

이어진다.

또한 무대공연 외에도 당일 만든 신선한 맥주와 맛있는 가맥 안주, 전주의 특색있는 수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 플라마켓 등도 상설 운영된다.

이와 함께 올해 가맥축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곱과 그릇, 접시까지 다회용기 사용이 확대되며,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인 축제장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참여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적절한 먹거리 가격 책정을 위해 고민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201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전주가맥축제'는 전주민의 독특한 문화인 '가맥맥주'를 주제로, 올해 공식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와 창립 100주년을 맞은 지역기업(쥬하이트진로,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지역 가맥업체가 함께 만들어 온 전주지역 대표 여름축제가

다.

전주시는 전주가맥축제를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축제에 공식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상일 전주가맥축제추진위원장은 "전주가맥축제 10주년을 맞이해 풍성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준비했다"면서 "더운 여름밤 시원한 맥주와 함께 일상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모두 풀고 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10년간 전주가맥문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신 전주가맥축제추진위원회와 가맥자기, 기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올해를 시작으로 전주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전주의 가맥문화를 알리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4일 동주민센터 1층에서 착한가게 및 착한가정 가입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한이웃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개최했다.

중화산2동, 착한나눔으로 물든다

착한이웃 명예의 전당 제막식 개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2동(동장 김용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현옥)는 24일 동주민센터 1층에서 착한가게 및 착한가정 가입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한이웃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착한이웃 명예의 전당 100호 릴레이 현관 제막식 행사는 지역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따뜻한 지역을 만들어 가는 가치나 가정에게 착한나눔 동참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중화산2동 착한나눔의 물결을 일으키기 위한 첫 번째 행사로 마련되었다.

이 행사는 착한가게 17개소 대표자를 비롯해 배회곤 완산구청장, 진형석 도의원, 이기동 시의원, 장병익 시의원, 전북공동모금회 한명규 회장, 중화산2동 조약반주민자치위원장, 현성국 현대육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한이웃 릴레이의 추진 배경과 주요 사업성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보고와 현관 제막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조약반 주민자치위원장은 "착한나눔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정과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따뜻한 지역을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된다"며, "착한나눔에 동참해주시는 사장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이에 완산구청 배회곤 청장은 "경기원체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착한나눔을 실천해 주신 착한가게 대표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착한나눔 문화의 길잡이로서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중화산2동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돕는다

8월부터 중소기업 3억원·소상공인 2000만원까지 융자 가능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해온 전주시가 명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자금난 해소를 돕기로 했다.

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올 하반기 약 111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대상 기업이 협약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시는 추석 명절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8월 5일부터 9일 까지 신청을 받고, 명절 이전 선정 결과를 통보해 기업들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건설업·부동산업·보건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융자 한도액은 중소기업은 3억 원까지, 소상공인은 2000만 원까지다. 융자 기간은 2년으로, 연장 신청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일반기업에는 3%,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기업, 바이전주 우수업체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에는 3.5%씩의 대출이자를 보전해줄 계획이다.

융자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시중 9개 금융기관(전북·KB국민·신한·IBK기업·KEB하나·KDB산업·우리·NH농협·수협)에서 2개월 이내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단,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로 신

청 시 대출 희망 상담을 통한 대출상담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 안내 및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1-2068)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 122억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를 선정하여 어려움을 겪는 전주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지탱해주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상반기 8개 전주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성료

전주시는 지난 1월 '제19회 전주시장기 생활체육 스키&스노보드대회'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 총 8개의 전주시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4일 밝혔다.

올 상반기 대회에는 전주시민 등 전국의 생활체육인 총 3200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시는 올 상반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도 오는 8월 3일 '제21회 전주시장기 전국 대학클럽 농구대회'를 시작으로 활발한 생활체육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 하반기에는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종목의 총 22개 전주시장기 생활체육대회가 계획돼 있다.

전주시장기 생활체육대회의 장소 및 세부 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주시체육회 누리집의 주요사업안내를 참고하거나, 전주시 체육산업과(063-281-2384)로 문의하면 된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체육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을 계속"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지난 1월 '제19회 전주시장기 생활체육 스키&스노보드대회'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 총 8개의 전주시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사진은 제34회전주시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모습)

전주시, 공중화장실 도로명주소 부여

전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까지 개방 예정인 공중화장실을 포함한 14곳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누구나 쉽게 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적 주소 체계로, 공중화장실의 경우 단독 건물로 설치됐지만 별도의 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해당 위치의 지번 또는 인근 주소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왔다.

시는 정확한 위치 파악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난 상반기 41곳에 이어 하반기 14곳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후미진 곳에 위치해 야간 식별이 어려워 불편함이 따랐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축광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는 건물번호판에 탑재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현재 위치의 도로명주소가 지도와 함께 음성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했으며, 긴급 신고 버튼(119 또는 112)을 누르면 구조요청 문자가 현재 위치의 도로명주소와 함께 전송돼 신속한 구조도 가능하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업무를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